

동해해수청, '25년 상반기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6월 26일(목) 15시 무역항 내 위험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25년도 상반기 동해·묵호항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는 매년 상,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 등 동해·묵호항 내 위험물 취급 업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며 소통하였다.

동해해수청 관할 무역항인 동해·묵호항에서는 2024년 한해 655건의 위험물 반입신고를 통해 총 933천톤(유류 : 849천톤, 황산 : 84천톤)의 위험물이 반·출입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험물 관련 사고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해·묵호항 내 위험물 작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험물 취급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사고없는 안전한 동해·묵호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33-520-6231)
		담당자	주무관	강진철 (033-520-6322)
			주무관	김영인 (033-520-6242)

참고

사진대지

